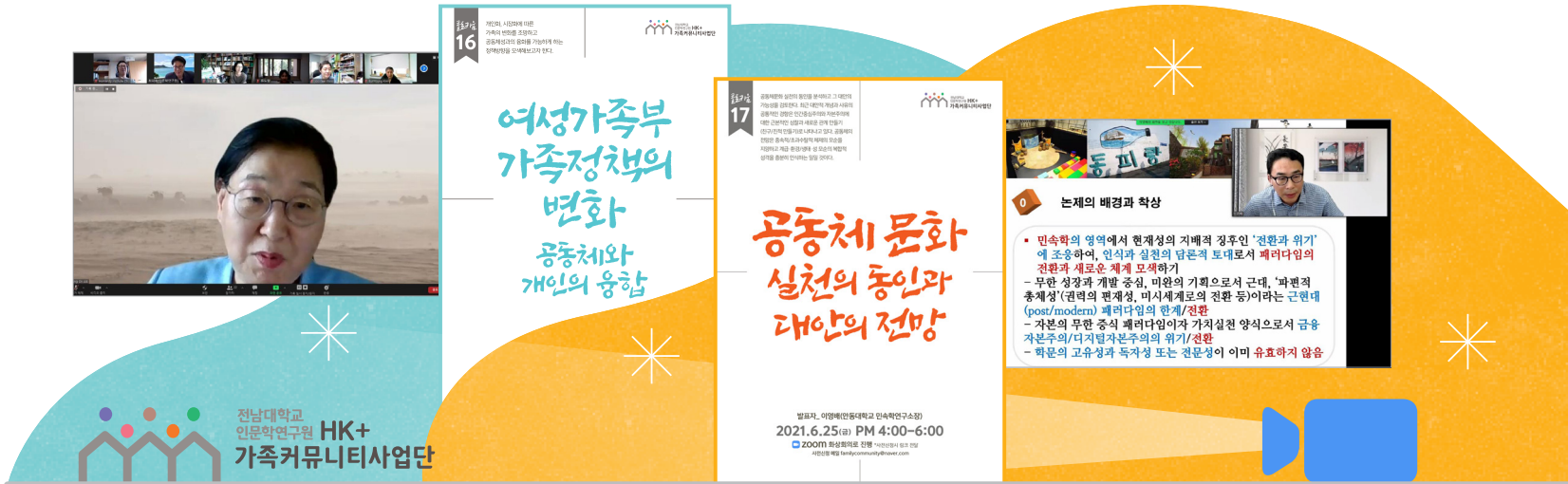


가족 정책, 공동체 문화 주제로 16·17차 콜로키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장관, 이영배 교수 발제로 진행, 진지한 토론 이어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5월 28일(금)과 6월 25일(금)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 사업단의 제 16~17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Zoom 화상회의로 접속 링크를 제공해 진행되었다.

16차 콜로키움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최대회(HK연구교수)의 사회로, 이정옥(전 여성가족부 장관) 명예교수를 모시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변화: 공동체와 개인의 융합」이란 주제 아래 한국사회의 가족 정책의 변화 양상과 현 시점에서 가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정옥 전 장관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여가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다양한 가족을 이야기하면 다른 정치적 주장들이 나머지 제도 개혁의 시도까지 다 무산시키려는 압력으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정책의 개혁이라는 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수용가능한 범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기본 계획 속에 추상적으로 가족의 다양성 논의를 넣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관습과 관련된 영역의 법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정확한 개념 설정과 연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인 법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였다.

이정옥 전 장관의 발표 이후 참여자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질의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노동과 가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연령통합 관점에서 정책 진행 방향, 여가부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집단적 반감 표시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코로나 19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여성 관계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K-행정으로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정책 관련하여 정부 여러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정년 연장, 생산성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대 남성의 반감은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권을 제로점 개념으로 오인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제시한 바 있듯이, 혐오 조장과 경쟁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20대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사회 비전 만들기 프로그램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해와 갈등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17차 콜로키움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한의승(HK교수)의 사회로, 이영배(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를 모시고 「공동체문화 실천의 동인과 대안의 전망」이란 주제 아래 공동체문화 실천을 범주화하고, 민속의 변환으로서 공동체문화 실천이 위기와 전환의 현재 사태 속에서 어떻게 그 동인을 얻고 전망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그 한계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영배 교수는 “본 발제는 민속학의 영역에서 현재성의 지배적 징후인 ‘전환과 위기’에 조응하여, 인식과 실천의 담론적 토대로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체계 모색하기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다. 즉, ‘공동체문화’라는 문체계의 구성과 그에 따른 패러다임 정립과 활용으로 의제화한 것에 해당된

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영배 교수의 발표 이후 참여자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질의는 발제문에서 표로 정리한 공동체문화 실천의 경향 사례와 실천 내용과 조직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 공동인들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하나의 체계로 정의되는 공통장(common)에 대한 해석과 적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공동체문화 실천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위기의 복합 요인으로서 ‘계급-환경-생태-성 모순’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최종적인 차원에서 삶과 사회의 불안정성을 다중적으로 조건짓고 지지하고 있는, 종속적이고 초과수탈적인 체제를 지속시키는 모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해소의 가능성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인식 또는 사유의 차원에서라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재고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인문학연구원·(재)한국학호남진흥원 MOU

한국학·지역학·가족커뮤니티인문학 공동연구의 토대를 확보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과 7월 12일(월) 14시에 한국학호남진흥원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학·지역학·가족커뮤니티인문학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정미라(전남대 인문학연구원장), 한의승(HK교수), 위민호(행정실장),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장), 나상필(기획연구부장), 엄찬영(기획연구부 일반연구위원), 조광현(자료교육부 일반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국학·가족커뮤니티 인문학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지역학·가족커뮤니티 인

문학 기반 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호협력 운영」, 「학술 관련 세미나 및 양 기관의 자료 DB, 정보 서비스 개발 및 협력」 등에 상호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학, 지역학,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을 진흥시킴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학술연구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양 기관의 협약 체결은 한국학, 지역학과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융복합적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협약 체결은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문학연구원·광주여성가족재단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동 학술 포럼 개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이하 인문학연구원)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정책포럼을 2021년 7월 13일(화) 13:30~15:00에 공동 개최하였다. 광주여성가족재단 3층 북카페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된 포럼은 『재단 10년, 지역여성 일과 생활을 그린다』라는 제목으로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일·생활 균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포럼은 김미경 이사(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정일선 이사(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곽현미 국장(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영신 위원(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광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삶」, 성지혜 실장(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실장)이 「대구여성의 일·생활 균형과 삶」이란 주제로 발표한 뒤, 안숙영 교수(계명대 여성학연구소)를 좌장으로 모시고 전명숙 교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추주희 HK연구교수(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윤주 교수(계명대 스페인중남미학과)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영호남의 대표적 여성가족 정책 및 연구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계명대여성연구소,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양지역의 현실을 토대로 논의의 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원 학술 동정

논문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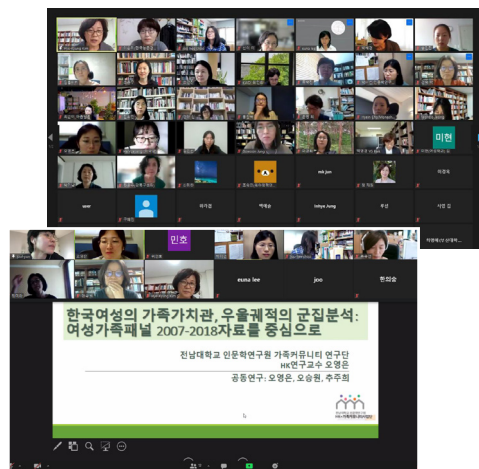
- ▶ **박미선**, 「조선 숙종대 장희빈의 왕비 책례 거행과 그 함의」, 『한국학』 4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06.30.
- ▶ **정미라**, 「가족과 상호인정의 원리」, 『헤겔연구』 32권 1호, 한국헤겔학회, 2021.06.15.
- ▶ **한의승**, 「19세기 한문단편소설집 『奇說』의 성격과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 『석당논총』 80집,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1.07.3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한국가족학회

‘코로나19와 가족’ 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교수)과 한국가족학회(회장, 전북대 김혜경 교수)는 6월 5일(토) 온라인으로 ‘코로나19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돌봄 전환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동과 노인의 돌봄 경험, 일생활 관계 변화에서의 젠더적 측면, 코로나 시기의 젠더 폭력 등 다양한 가족 및 젠더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학술대회의 5번째 세션인 「가족실천과 가족커뮤니티」에서는 추주희 HK연구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원)가 「지역에서의 가족실천은 보수적인가?」라는 주제로 오영은 HK연구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원)가 「LSTM을 이용한 한국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우울 변화궤적의 군집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 류유선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과 김주현 전문위원(서울대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의 토론을 통해 전남대 인문학



연구원의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의 1단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아젠다의 위상 정립과 확산을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다.